

한다)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.

### 3) 고지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가) 이 사건 업데이트가 이 사건 C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것임에도, 피고 A은 이러한 성능저하사실을 사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·실행을 유도하였다.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, 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.

나) 원고들은 이 사건 C을 구입하면서 피고 A이 미리 마련해 놓은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고 A과 사이에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위 업데이트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성능저하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명확히 설명·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재산적 이익과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. 그럼에도 피고 A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C의 성능저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와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,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.

### 4)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

피고 B는 피고 A의 자회사이자 대한민국지사로서,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C의 품질, 성능 및 안정성 등을 보증하는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그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 B 역시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C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내 사용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, 위 업데이트의 배포를 막지 아니하였다.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를 용